



[해외건설 법률플라자 2021] 김앤장-해외건설협회 공동 웨비나

결과보고

2021. 7. 19

□ 개요

- 행사명: [해외건설 법률 플라자 2021] 김앤장법률사무소 - 해건협 공동 웨비나
- 일시/장소: 2021. 7.15 (목) 16:00~18:00 / Zoom 화상회의
- 주최: 해외건설협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 주제: 해상풍력 Project의 바람 - 건설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참석자: - 국토부 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
- 해건협 이진기 회장, 김영태 부회장, 정창구 센터장 등
- 국내건설 기업 등 약 200여 명

□ 주요 내용

- 개회사 (임병우 김앤장 변호사)
 -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은 한국과 세계경제, 더 나아가 우리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참석해주신 분들이 Team Korea로서 해상 풍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램
- 축사 (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
 - 바쁘신 가운데 200명 넘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해외건설 플라자 2021'은 최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해외건설 기업에 대한 법률 서비스 강화'에 발 맞춰 기획된 세미나임
 -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로 인해 해상풍력은 새로운 전력원으로 부

상 중이기에 이는 시의적절한 주제이며, 세미나를 통해 48년의 역사가 있는 김앤장의 노하우가 건설기업에게 잘 전수되기를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계신 해외건설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해외 건설/에너지 프로젝트의 개요 (신상명 김앤장 변호사)

- 세계는 전통적 에너지(석탄, 가스복합, 원자력 등)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중에 있으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발표,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 기업의 탄소 중립 선언 등은 각국의 energy mix에 영향을 줄 것
- 해상풍력 사업도 비소구적(non-recourse), 제한적 파이낸싱(limited financing)의 PF 사업 형태가 요구되며 사업구조화 등 관련 개념을 잘 익힐 필요가 있음
- 해상풍력 사업은 능력 있는 contractor가 여러 건설 계약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해외 사업 대비 다른 점임

○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최근 동향 및 Trend(해외) (조봉상 김앤장 변호사)

- '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신규 해상풍력 발전 설비(중국 3GW, 유럽 2.2GW, 한국 60MW)가 설치됨
- 풍력발전단가(LCOE) 감소, 각국의 신규설치 목표 상향, 부유식 해상풍력 시범사업이 유럽에서 활발히 추진 중임을 고려할 때 '25년까지 연평균 31.5%의 성장률로 성장하여 총 70GW의 신규 설비 설치가 예상됨
- 향후 5년간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과 함께 대만, 일본, 한국, 베트남에서의 사업이 증가할 것이며 미국, 영국, 동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
- 해상풍력 사업에서는 Multi-contract 건설계약 구조로 진행, Framework Agreement 체결 증가, 부유식 해상풍력 상품화 노력 등을 주요 트렌드로 꼽을 수 있으며, 설치 장비확보, 공기지연, 항만

공간 확보 등의 이슈가 존재함

○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최근 동향 및 Trend(국내) (오민영 김앤장 변호사)

- 국내 에너지 전환은 주요국 대비 저조한 편(재생에너지 발전량 6%)이며 '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 2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재생 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점검 결과 해상풍력 산업 내 국내업체의 기술 및 가격경쟁력이 열세 함이 밝혀짐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해상풍력 발전 방안('20.7)에서는 정부주도 입지발굴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 강화, 대규모 프로젝트 연계 산업경쟁력 강화 등이 제안됨
-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서는 전력 수요처인 서울-지방의 계통 연계 문제, 국산 기자재(Local contents) 사용 가능 여부, REC 장기고정계약 등의 이슈가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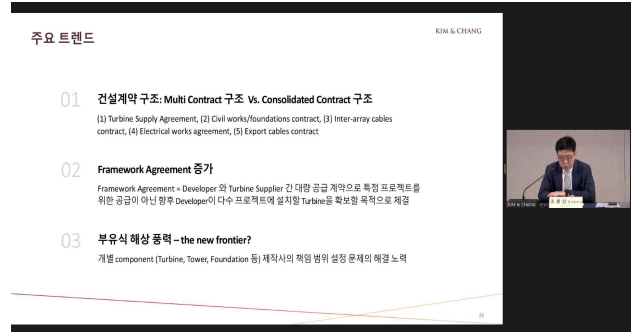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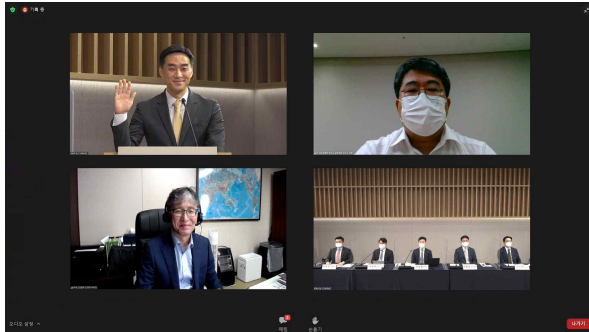
○ Renewable Energy Project 계약 협상 시 유의 점 (이현복 김앤장 변호사)

- 해상풍력 사업은 전통적인 EPC 계약과는 다른 방식의 Multi-Contracting 방식 채택 중이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Reduced liability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EPC 프리미엄은 상실하게 됨
- 설치 지역의 seabed condition을 계약자가 정확히 알기 어려움, 기상, 해상 상황에 대한 변동 리스크 등 다양한 어려움 존재하기에 관련 규정을 사전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기술적/Technical 분쟁 관련 유의할 요소들 (이대웅 김앤장 변호사)

- 현재는 북유럽 중심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진행 중이나,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이 공격적인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치열한 기술적 발전과 경쟁이 예상됨으로 신기술의 시행착오 및 분쟁에 대해 외부 technical expert를 통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할 것

□ 세미나 사진



- 정책지원센터 -

끝.